

# ‘해남식 닭코스요리’ 지역 경제 살찌운다

###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10억 들여 주차장·보행로 등 조성 주민설명회 갖고 의견 수렴

해남군이 ‘해남식 닭코스요리’로 지역 경제를 살찌운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도의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남식 닭코스요리 음식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지역 음식을 대표하고 단일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이 밀집해 있는 곳을 음식거리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비 5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주차장과 보행로를 조성하고 간판과 안내판 정비, 쉼터 및 경관을 조성하게 된다.

해남식 닭코스 음식은 닭을 이용해 육회와 불고기, 구이, 보양백숙, 닭죽까지 5가지 요리를 차례로 맛볼 수 있는 코스 요리이다.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12개 전문점들이 닭·오리 요리촌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요리법이 유명해지면서 해남을 대표하는 명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8년 해남군 최초로 먹거리 특화거리인 닭요리촌으로 지정해 업소 개별적으로 보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낡고 노후화돼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또 음식점과 차도 사이에 보행로가 없고 주차장이 부족해 방문객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지난 28일 해남읍 연동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차공간 확보와 인도개설, 간판 및 외벽 정비 등 거리경관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남도음식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 추진의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 1대1 컨설팅을 통해 단품메뉴 개발과 함께 지역민 및 관광객들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주 경영마인드 향상교육을 지원하는 등 닭요리촌 발전에 대한 지역민 의지도 모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식 닭코스요리를 더 많



육회와 백숙, 닭죽 등 5개 요리로 구성된 해남식 닭코스요리 <해남군 제공>

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와 음식문화 감수성을 높여가겠다”면서 “외식업해남군지부와 협력해 해남식 닭코스요리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서 기자 dia@kwangju.co.kr

### 장흥 남산공원 팔각정 보존 추억·낭만 깃든 향토성 시설물

장흥 남산공원 팔각정을 보존한다

철거나 보존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장흥 남산공원 ‘팔각정’(수령정) 정자가 보존된다.

<광주일보 4월 23일자 12면 보도>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1984년 한 독자의 유지에 따라 세워진 남산공원 팔각정을 문화재청 권고로 철거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유지 보존하기로 했다.

군은 기부자의 송고한 기부문화를 살리고 그동안 공원을 대표하는 추억과 낭만이 담긴 상징과 향토성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문화재청에 팔각정 보존요청과 함께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거쳐 난간 설치, 보강수리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 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팔각정 철거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문화계와 군의회는 팔각정이 철거할 정도의 노후와 훼손되지 않았다며 역사를 파헤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

제9회 향간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특별전시

## 마스크, 희망을 잇다 특별전

“캠핑 가고 싶어요...코로나 물러가라”

‘캠핑 가고 싶어요, 코로나 물러가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는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된 지 오래다. 영문도 모르고 답답하게 마스크를 써야 했던 어린이들이 하얀 마스크를 도화지 삼아 그린 그림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지난 28일 순천부음성 남문터 광장에서는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마스크에 그린 특별기획전 ‘마스크, 희망을 잇다’전이 열렸다.

순천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지역대표 예술제인 ‘2021 향간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의 특별기획전’으로 열렸다.

6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희망, 다시 시작’을 주제로 1600여명이 마스크를 활용해 일상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그려 넣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순천문화재단 특별기획 ‘마스크, 희망을 잇다’전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힘든 모든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간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생활 속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향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9년째 열리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영광군 어가 소득 증대 어종 방류사업 확대 ‘어린 대하’ 773만 마리 방류

영광군이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고부가 가치 어종 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칠산해역에 고소득 품종으로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어린 대하’ 773만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한 대하는 수정란을 확보해 한 달 남짓 사육해 평균 크기가 1.2cm 이상이며, 올 가을께면 어획해 식탁에 올릴 수 있다.

굴비와 더불어 영광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대하는 서·남해안에서 서식하는 새우류 중 가장 크다. 4월 말 먹이가 풍부한 연안으로 이동해 5~6월 산란하며 생존율도 높다.

정착성 어종이라 방류 후에도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아 방류 효과가 매우 높은 게 장점이다.

영광군은 1년생 품종인 대하가 성장이 빠르고 생존율이 높아 소득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대하 외에도 오는 7~8월에는 칠산해역에 ‘어린 보리새우’ 30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어서 올 가을에는 새우 어획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대하는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글리신 함량이 높아 단맛이 나고 칼슘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해 뼈 건강과 원기회복에 좋은 수산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 종자 방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 무안 출신 이철호 하당장례식장 대표 마스크 기증

무안군 삼향읍은 최근 출향인사 이철호(목포시 라이온스 총재, 하당장례식장 대표)씨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60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삼향읍 월계마을 출신으로 마스크 기부에 나선 이철호 대표는 평소에도 고향의 어려운 일에 적극 앞장서 왔다.

<사진> 이번 기증된 마스크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인 상황에서 삼향읍 관내 55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군은 앞으로도 감염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철호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고향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스크를 전하게 됐으며, 하루속히 예전의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 목포시 “ 시내버스업체 휴업 허가신청서 철회” 공론화위원회, 12월까지 정상화 방안 마련

목포시는 목포시내버스업체인 (주)태원여객·(주)유진운수가 휴업 허가신청서를 철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내버스 업체는 지난 28일 목포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제시를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기간 공론화위원회의 제시안을 수용하고 휴업 허가신청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통보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5일 1차 회의를 갖고 시내버스 업체의 휴업 철회 및 투명한 회사 경영을 요청했다.

목포시내버스 업체는 지난 4월27일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지난 5월4일 반려한 상태다.

공론화위원회는 6월 중 2·3차 두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공론화 운영 방안 및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3차 회의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회계 검증, 적자노선 개선방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공영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7월부터는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대토론회, 시민 설문조사 등 속의 과정을 진행한 뒤 12월 중으로 최종 권고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목포=박중배 기자 pjb@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A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